
第102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女性特別委員會 第3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8年3月19日(木) 午前11時

場所 保健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女性政策에關한業務報告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女性政策에關한業務報告 ... 2面

(11時 21分 開議)

○委員長 金天柱; 의석이 정돈되었으면 서울特別市議會 제102회 臨時會 제1차 서울特別市議會 女性特別委員會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참 봄비가 잘 내려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IMF속에서도 하늘이 축복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농촌에 푸른물이 이렇게 돌 수 있게끔 하늘이 축복해 주시는 이런 좋은 나라에 사는 것을 다시 한 번 감사히 생각 하시면서 여성복지와 지위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委員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委員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500만 서울 市 여성의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金愛良 家庭福祉 局長님, 또 課長님, 그리고 執行部 關係官 여러분, 이렇게 만

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현안업무가 바쁜 가운데서도 오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家庭福祉局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委員님과 執行部 關係者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執行部 關係官께서는 아직도 사회적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여성정책, 여성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 局長님 이하 여성정책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같은 공무원들조차 이해를 못해 주십니다.

그런데 밖의 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같이 근무하는 이 집행부와 이 공무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女性特委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특위를 만들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特委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特別市女性政策에關한業務報告

(11時 24分)

○委員長 金天柱; 이 의사일정에 따라서 서울特別市 여성정책에 관한 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家庭福祉局長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金愛良; 안녕하십니까? 家庭福祉局長 金愛良입니다.

존경하는 女性特別委員會 金天柱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들을 모시고 오늘 서울시여성정책관련 업무보고를 드

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市에서는 그 동안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고 올바른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민복지5개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21세기는 자원의 보유보다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더욱 중요해지는 정보화 사회가 될 것이며,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적극적인 역할과 창의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성 스스로 권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와 능력을 개발하고 또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성이 능력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직장에서도 실질적인 남녀평등은 아직 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많은 여성들이 사회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國家와 社會는 이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을 적극 개발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여성 스스로로 자기 혁신을 통해서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市에서는 여성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개발하고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성특위委員 여러분께서는 여성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여성들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 주시는 그런 委員님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고드리는 저희 市의 여성정책이 다소 미흡하고 또 부족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執行部 公

務員들을 비롯한 우리 여성들 전체 또 우리 委員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그런 것들에 힘입어서, 또 많은 재원을 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정책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저희 女性政策補佐官으로 계시던 安熙玉 補佐官께서 청와대 여성정책비서관으로 영전을 하시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은 제 개인적으로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성정책관련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幹部紹介:女性福祉課長 申燕姬, 教育開發係長 朴根壽, 婦女保護係長 南基鍾, 女性政策擔當事務官 金善順)

저희 女性福祉課에 女性行政係長 金聖洙 係長이 있습니다만 公務員敎育院에 敎育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委員님들께 배부해 드린 서울市 여성정책관련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報告)

서울特別市女性政策에關한業務報告

(뒤에 실음)

.....

다가오는 21세기는 여성인력의 시대로 전망이 되고 있고 미래정보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더 많이 요구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市에서는 다양한 여성정책이 개발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執行部 쪽에 대한 우리 委員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면 저희가 개발되는 여성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여성정책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天柱; 家庭福祉局長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를 들었지만 숨가쁘게 일을 많이 하셨어요. 짧은 시간 내에 보고를 요약해서 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는데 사실 家庭福祉局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무리 일을 해도 표도 안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家庭福祉局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서 요람국, 무덤국 이렇게 나누어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을 이것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정말 애를 많이 쓰시고 했다는 것을 아는데 듣는 동안에 야, 우리가 그 동안에 많이 도와주지 못했구나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사실은 오늘 女性政策補佐官이 보고를 해야되는데 안희옥 보좌관님이 영전을 해서 청와대로 갔기 때문에 우리 家庭福祉局長님이 보고를 했는데 이것 또한 여성정책의 누수조치가 아닌가 생각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市議會나 여성들이 좀더 관심을 가져 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끼면서 家庭福祉局長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것이 있으면 시간도 그렇고 해서 질의답변을 효율있게 하기 위해서 일괄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여러 委員님께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좋으시다면 질의답변을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 답변 후에 미진한 것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보충질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月杓 위원님 말씀하세요.

○洪月杓 委員; 洪月杓 委員입니다.

지금 委員長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家庭福祉局이라는 데가 가정의 안살림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도해도 끝이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번번히 보고를 받을 때마다 똑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또 앞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의 이 자리는 사실 女性政策補佐官室에서 했어야 마땅한데 다소 누수현상인 것 같아서 유감을 표시하셨습니다만 本委員 또한 그런 시각에서 몇 말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女性政策補佐官이 사실은 서울시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여성의 위상을 참 드높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앞장서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인 시각이나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많이 옆에서 들어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좋다고 해 놓고 옆에서 듣기 좋지 않는 말을 해 왔을 때 사실 우리 議員들 입장에서라도 편치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또 지금 家庭福祉局長님의 전임 두 분이 다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다른 곳으로 좋게 영전이 되어서 가셨는데 이것도 또 옆에서 그냥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하자면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한 큰 계단에 불과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느냐 本委員이 생각할 때 그 자리가 女性政策補佐官이라는 자리가 정말 생기면

서 번쩍 띄게 물론 일이라는 것이 번쩍 떨 일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했다라는 표시가 나면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여기 사무분장도 보면 여성정책 계획수립 및 조정, 여성정책자문, 신규정책개발, 뭐 이렇게 꼭 필요한 사무분장이 있습니다만 과연 이 사무분장에 맡는 것 만큼 그렇게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그렇게 또 정책을 조정씩이나 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女性政策補佐官室에 계시는 분이 여기 또 참석을 하셨다고 하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자평을 해 볼 때 과연 어느 정도의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가, 남이 평가하기 전에 한번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연 이 여성정책보좌관실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그래도 해냈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해 낼 수 있는 실적에 가까운, 자평에 가까운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와 함께 家庭福祉局長님께서도 말하자면 왜 이 女性政策補佐官이 외부에서 볼 때 공중에 그냥 떠 있다고 그러는가, 그 이유가 家庭福祉局하고의 어떤 사업연계가 안돼 있다는 뜻인가, 워낙은 여성정책보좌관 측에서는 정책만 개발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인원도 몇 안되고 또 내내 해 봤자 여성전반에 관한 것을 또 해 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家庭福祉局하고 어떤 체계적인 연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家庭福祉局長님의 어떤 솔직한 소견, 앞으로 政策補佐官室하고 家庭福祉局하고 그 관계 정립이 어떠어떠했으면 좋겠는지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이 또 많이 있으실 것

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자문위원회, 각종 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4명 13.2% 이것이 앞으로 30%가 되려면 인력 확보를 500명을 계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금 현재 진행도가 얼마만큼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몇 달 전 각종 위원회를 제가 한번 분석해봤더니 없는 데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문제를 앞으로 채워진다니까 별 문제가 아니고 어떤 특정 한 분이 한 네 군데에 중복해서 들어가 있는 분이 계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누구다 하면 다 아실만한 분입니다.

물론 서울시 여성을 위한 간판스타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꼭 그래야 되는가, 그분이란 일에 전념을 하게 해 주지, 이 위원회 저 위원회 뛰어다니시기도 참 힘드실 것 같고,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한 분에게 그렇게 과중한 책임을 준다는 것이 아무리 좋은 의미로 풀이를 한다고 해도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시정해 주시고 각종 위원회에 대한 여성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더 좀 빠른 시일 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天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林 委員님.

○林靜枝 委員; 林靜枝 委員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대비해서 여성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좀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컴퓨터가 386이나 486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쌀 때 구입을 해서 이것을 다시 586으로 고칠 수 있는가본데 이런 자재와 자료도 많이 확보해서 여성들에게 컴퓨터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

그리고 서울 여성쉼터에서 전화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금 洪 委員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서울市廳에 여성공무원 과장급 이상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21세기 정말 여성시대고 또 가정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지만 가정문제가 아주 중요하고 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성공무원이 여성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성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예를 들면 서울 본청 중요자리에 국장 이상이라든가 과장 이상에 여성인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天柱; 우리 金永姬 委員님.

○金永姬 委員; 金永姬 委員입니다.

정말 인원도 얼마 많지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 여성의 문제를 열심히 다루어 준 데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그런데 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女性政策補佐官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1급으로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희망했던 것은 한시적인 T/O가 아니라 정규직 T/O를 요망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직제로 봐서 여러 가지 업무분장은 되어 있습니다만 전 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특별히 여기 지적이 되어 있는 여성기업인을 위해서 정책보좌관실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완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 1급과의 관계에서 家庭福祉局하고 1급과의 관

계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을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각 국과의
연관관계에 여성의 특별한 문제는 전부 정책적으로 1급 보좌
관이 자리에서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정
말 성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니고 1급
보좌관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 바로 밑에서 일하시는 사무관이나 4급이 계실 테니까 거
기를 통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앞으로 1급이 우리는 서울시가 계속
있어서 정규화 되어서 여성본부나 여성실이 되어 줘야만이
여성문제가 2000년대에 이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구
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실하게
짚어지지 않으면 저희 女性特別委員會에서 목표로 삼아서
활동을 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한시적인 자리로 인해서 오히려
현재 있던 安熙玉 補佐官이 청와대로 감으로써 정식 T/O가
아니기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론 지금 계신 국장님이 답변하시
기는 어렵겠지만 의지는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
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
다만 위원회가 84개가 있는 중에서 지금 참여되지 않은 위원
회가 지금 27개 위원회로 되어 있죠. 거기 보면 기획관리실,
감사실, 재무국,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문화국, 환경관리실,
교통관리실, 도시계획실, 도로국, 본부의 사업 이렇게 해서
있는데 본위원이 전부 구체적으로 보면 여성이 참여하지 않

을 수 없는 위원회가 없어요.

왜냐 하면 지금 직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성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과도 있고 또 엔지니어들이 대단히 많은데 얼마만큼 인력확보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현재 앞으로 위원회가 임기 내지는 활동을 하지 않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시다만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현재 87년도의 계획이 15%였었지만 13% 밖에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미온적이지 않았느냐, 사업목표를 15%로 정했으면 확실한 15%가 보완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미온적이었다 그러면 목표 달성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안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해 주신 범위 내에서 상담소가 여기 나왔는데 여성의 전화라든가 청소년상담소라든가, 이것은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 실적으로 나왔는지 그것을 조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간단체로 알고있어요, 여성의 전화라든가 이런 상담전화는 여기에 서울시의 업무로 삼입이 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의 한양대학교 제3섹터 사회봉사활동 연구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각 대학이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정되어 있는 한양대학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서 앞으로 확장을 시키기 위한 방법인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한양대학에서 보내는 자원봉사자들 대부분이 학점과 관계돼서 어느 단체에 가서 얼마만큼 자원봉사 몇 시간하면 학적에 보고가 돼서 성적하고 관계가 된다고 분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단순노무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전문적으로 훈련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어민 방법이, 여기는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지만 너무 숫자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IMF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이 공동화현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아니면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지, 어린이집을 계속 우리가 만들고 있지만 현재 공동화현상이 나온답니다. 왜냐 하면 실적이 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이집이 지금 너무 많이 아이들이 없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天柱; 金勝子 委員님.

○金勝子 委員; 金勝子 委員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고 저는 조금 거기에 각도를 달리 해서 한두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하신 가운데 10페이지에 보면 각종위원회가 거기에 여성참여를 확대한다 했는데 각종 위원회 전체 위원회 수가 84개가 있고 그렇게 죽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저번에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지만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회를 위한 위원회, 구색 맞추기 위원회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IMF시대에 들어 있습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IMF에서 제외될 수도 없고 특별히 보호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때문에 이 시대는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여성참여수를 늘리는 것도 여성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우리가 요구되는 바이지만 그 이외에도 우리가 IMF시대에 맞게 발상의 전환을 도모하면서 그 기초 위에서 위원회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흔히 있는 말로 우리가 참담한 실직가장들이 거리로 정리해고에 의해서 내몰리고 있지만 우리 위원회도 필요하지 않은 것, 불요불급한 위원회 정리해고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것을 家庭福祉局長께서 한번 서울시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여성 자체의 그것을 위한 것보다는 전체 국가차원에서도 여성이 해야 될 역할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家庭福祉局長한테 문의하고 싶고요.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시설이라는 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가 문화라는 말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음식 문화, 먹거리문화, 입는 문화 등등 이제 모든 말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품화할 수도 있고 우리의 전통으로도 될 수 있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22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시설이라고 해 놓고 괄호 수영장, 체육실 괄호, 그런데 체육하고 문화가 5·6공 시대부터 같이 붙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 괄호해 놓고 수영장 체육시설만 해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데도 보면 체육시설에 가는 것이 맞는데 문화시설에 대

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고 세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은 어떻게 되고 있고 또 특별히 문화에 대한 부분적이고 세부적인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아마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남고 후세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투자, 또 교육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요청됩니다.

예를 든다면 옛날 보불전쟁 때 몰트케 장군한테 기자들이 승전의 소감을 물어보니까 몰트케 장군이 대답하기를 저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 오지에서 나의 병사들을 키워준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어머니들에게 이 승전의 영광을 들리겠습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교육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차대한 일이고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문화라는 말을 남용하기에 앞서서 그것에 대한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도 문화체육시설 해 놓고 괄호 수영장, 체육실만 있기 때문에, 물론 좋은 인체에 좋은 정신이 담겨진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세목을 보고해 주시고, 어떤 문화적인 시설이나 또 문화 교육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女性政策補佐官께서 청와대로 영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인력이 政府에서 중요시책을 하는 자리에 있고 또 서울시 女性政策補佐官이 그렇게 영전한 데 대해서는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만 한 포지션에 그러니까 한 자리에 머무르는 평균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우리 행정관료들

의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에 상당히 관계가 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보고를 보면, 外國의 경우에는 한 자리에 35년을 계속 그 자리에서 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도 앞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강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市議會 제4대 개회했을 적에 그때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지목한 바 있지만 6개월 간에 한 사람의 자리가 세 번 바뀌는 것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 전문성이 나올 것인가? 우리가 이 IMF시대를 맞이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전문성, 장인정신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통과의례로 이 자리를 그냥 거쳐지나가는 자리, 그래서야 어떻게 우리가 전문성이 나오고 행정이 제대로 우리가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성기관이 또 특히 여성전문인력이 여러 가지로 모자라기도 하고 문제가 많은데 한 자리에 머무르는 평균기간 그것을 좀 지금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天柱; 자, 우리 委員님. 특별히 제가 지목을 해서 질문을 하시라고 하겠습니다.

○李昌根 委員; 저는 평소에 느낀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나라가 IMF시대의 어려운 난국에 있지만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여성분들이 각계 각 분야에 아저런 분야에도 우리 여성 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개인의 업을 통해서 많이 직업을 물어봤을 적에 제가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앞으로 전망이 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쪽으로 또 봤을 때는 그 좋은 학식과 덕망과 사회 경륜이 많은 것을 활용을 안 하시고 엉뚱한 데만 쓰는 한 그룹을 봤을 때는 또 그런 것을 볼 때는 역장이 무너지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진짜 우리 女性特別委員會에서 그런 분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어시스트해 주는 그런 얘기를 해서 어떤 프라이드나 감정이 상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임체나 아니면 우리 기관에서 선도하는 그런 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시간에 자기 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누가 말리느냐, 이렇게 되면 그런 것이 사회이고 사회가 또 국가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평소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선거가 6월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한번 보니까 金永姬 委員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많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흐뭇했어요.

그래서 이번 지방자치선거에 우리 여성분들이 대거 참여를 하셔서 또 유권자들이 좀 여성들을 질투나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자기 몫을 대신해 준다 이런 방향으로 마음을 선회해서 많이 참여가 되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外國에 비해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너무 질투심이 강해서 같은 여성을 뽑아 주지 않는 것을 보니까 좀 안스러운 것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어떻게 많이 선도하고 마음을 열어서 國家가 잘 되게끔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나라가 어려울 적마다 보면 여성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잘되고 안되고 성패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天柱; 아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金永姬 委員; 추가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天柱; 네, 말씀하세요.

○金永姬 委員; 지금 현재 저희가 전 회기 女性特別委員會 때에는 內務局長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직제나 분포도를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로 서울시가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市政開發研究院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성공무원이 정책에 담당할 수 있는 그 분야에 家庭福祉局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다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동회의 동장이 행정 5급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 5급 여성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행정 부분에는 여성동장이 상당히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과 직접 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여성공무원이 지금 현재 동에 많이 분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별정직과 임명직으로 있었던 분 한 2분만 동회장으로 계시고 앞으로는 동회장이 더 축소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여성발전을 위해서는 리더자인 동장이 많이 배출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의 정책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22페이지에 보면 서울여성플라자 건립이 있는데 거기에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건축사협회가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여성건축사협회의 회원들이 이 안에 참여가 되었는지, 건축기사들이 그래야 아마 여러 가지 구조상 볼 때는 남자가 보는 제도설계와 여성이 보는 제도설계가 다르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여성에게 아주 편

리한 국제자료도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참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이런 분들을 좀 참여를 시켜서 좀더 적극적인 여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天柱; 그러면 질문을 거의 다 하셨는데 나중에 답변을 한 다음에 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참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신태희 보좌관이나 안희옥 보좌관님이 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좋게 되어서 나갔는데 이게 다 걱정이 많아서 그 자리는 그렇게 뭔가 짚고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洪月杓 委員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女性特委가 1급을 많이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기초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성들도 1급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이 하는 정책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야 이게 진짜로 두 바퀴가 똑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듣고 참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 하고 싶은 것은 214명의 여성위원이 있다는데 그 명단을 서면으로 우리 각 위원들한테 하나씩 다 주시면 어디서 무엇을 하고 누가 있는지를 조금 알면 참고가 되겠다 싶어서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다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보다 보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조금 여기에서 자료에 미비된 것이 윤락여성 문제가 전혀 대두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두 얘기했습니다만 金永姬 委員이

나 金勝子 委員이 얘기했습니다만 한 어머니는 100명의 스승을 능가한다고 했어요. 윤락가에 있는 여성들도 언젠가는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한 자녀가 잘못되면 건전한 자녀 100명이 물들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명의 윤락여성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윤락여성 문제, 더군다나 요새는 더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미성년 윤락여성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 윤락여성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좋은 여성플라자 이런 것을 다 건립하는데 진짜는 시설을 만들어서 정말 보통의 여성들한테 베푸는 것보다는 그 시설을 만들어서 문제되는 것을 예방하고 문제된 여성들을 끌어안고 그것을 더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미성년자의 윤락여성은 얼마나 되며, 윤락여성들의 시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거기에 애로점은 무엇이며, 민간이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이며, 이런 것이 있다면 서면으로 주셔도 좋고 이따가 답변할 때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1차 委員님들의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답변준비를 위해서 조금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금방 하실 수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金愛良; 바로 말씀드리고 보충할 것은 課長이.....

○委員長 金天柱; 그럴까요, 그만큼 준비가 다 된 것 같으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고 또 보충질의할 것이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력가네요, 다른 委員會에서는 다 30분씩 드려야 되는데 실력가들만 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金永姬 委員; 앉아서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天柱; 마이크 내려놓고 앉아서 하세요.

○家庭福祉局長 金愛良; 家庭福祉局長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우리 여성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애정어린 그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올리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은 담당과장이나 계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洪月杓 委員님께서 여성정책보좌관실에서 그 동안 한 업적에 대한 자평을 우리 담당하 사무관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담당했던 우리 金善順 事務官도 업적에 대해서 자평을 하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옆에서 본 사항으로 이렇게 답변을 대신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 서울시는 정부 어느 기관이나, 또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서 여성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고 그것에 따라서 기구를 1급으로 만들고자 굉장히 조직파트 쪽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한시 TO가 아닌 정식 집행기능을 가진 그런 보좌관실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으나 정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 절름발이식의 한시 정원을 받게 됐습니다만 저희 여성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절름발이 일 망정 그 1급 자리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고 또 그것에 힘입어서 그 동안에 저희가 사실 어깨도 으쓱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성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것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중앙에 연결이 되어야 되고 또 법적인, 또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성사업이나 정책이기 때문에 1급 보좌관 한사람이 어떻게 눈에 띄는 업적을 이룰 수는 없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女性政策補佐官이 1급으로 임명이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업적,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이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기 때문에 작은 업적들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들의 숫자가 사실은 저희가 총체적으로 파악도 안돼 있었고 그것에 대한 남성들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補佐官室에서 현황을 조사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저희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각 국장들이 다 참석한 간부회의, 또 구청장, 부구청장들 전부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이런 실정이다, 우리 여성들의 인력이 얼마나 고급화된 인력이 많으나, 이런 여성 인력을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공문이 시달된 이후에 각국에서 또 남자공무원들이 우리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넣을 테니까 추천을 해 달라 이런 전화도 많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해서 추천을 해서 아까 여기 보고드린 대로 그래도 많은 13명이라는 여성위원이 신규 위촉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결원이 생길 때는 여성위원을 위촉을 하겠다 약속을 받은 그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남성들에 대한 여성의 시각을 변화시켜 주는 데에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성위원회가 운영이 되면서 여성위원회를 女性政策補佐官室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19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건의가 되면서 또 그것이 시행이 되었고 또 건의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여성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지금도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공무원의 보직확대를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女性政策補佐官室의 집행부서와 연계해서 남·녀 평등한 조정담당자가 지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서울시 공무원들이 승진할 때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지만 그 제약 속에서도 여성들이 우선 승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이 저희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뿐만 아니고 정책을 결정하는 기획실이라든가 내무국 쪽에 건의가 돼서 의식을 환기시키는 그런 계기들도 가졌습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 女性特別委員會에서 內務局長을 출두시켜서 업무보고를 받으신 이후에 저희가 한 가지 또 보고드릴 사항은 인사과에 여성공무원을 하나 배치하고 싶은데 적임자를 추천해 주면 좋겠다라는 반응이 올 때에는 저희 女性政策補佐官이 물론 집행기능이 없고 참모의 기능으로 조금 절름발이기는 하지만 없었던 것보다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옆에서, 보좌관실에 있지 않은 국장으로서 또 느끼면서 평가를 했습니다.

또 家庭福祉局과 사업이 체계적으로 연계가 잘 안돼서 제 기능이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도 계셨었는데 이것이 어떤 채널이 정식기구화 된 채널은 연결이 안되어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래도 저희 家庭福祉局의 女性福祉課에서 보좌관실에 협조를 많이 하고 또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잘 이루어졌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조금 더 채널을 잘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인식이

나 또 체계를 조정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金永姬 委員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죠, 1급으로서 역할이 중요한데 정식 TO를 받는 것에 대한 국장의 의지를 물으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국장의 의지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무원사회 속에서의 구조조정이라든가 또 상위직급에 대한 분포가 너무 많이 되어있다는 국민들의 지적 등등이 있어서 과연 이것을 정식 TO로까지 받을 수 있겠느냐하는 것에는 좀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내부적으로 저희 姜德基 職務代理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安熙玉 女性政策補佐官이 떠남으로 해서 그냥 자연 소멸돼 버리는 그런 현재의 입장인데 이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은 가지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을 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 아직은 성숙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市政開發研究院에서 지금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 저희 각 계장급 이상들은 전부 자기 의견을 써내도록 하는 그런 설문조사도 얼마 전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되어져서 구체적으로 기구에 대한 토론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이 정해지는 그런 과정에서 좀 강한 우리 여성계에서의 어필이 있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 국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국의 기능과 연계된 여성정책에 있어서 실적이 있었는가 하는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金永姬 委員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洪月杓 委員님께서 각종 위원회 2001년에 30%로 하기 위한 계획에서 500명의 인력확보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각종 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여성위원을 좀 추천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애로사항이 저희 나름대로의 여성인력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00명 정도 규모의 여성인명록을 저희가 발간을 하겠다, 그 500명은 여성인명록에 수록되는 전문분야의 여성들이 그 범위를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30%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그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각 실·국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명단을 전부 받았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에 어느 위원이 이제 언제면 임기가 끝난다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하는 그런 현황 쪽에 중점을 두어서 촉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한 군데에서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로 위촉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저희 女性政策補佐官室에서 명단을 집중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좀 시정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林靜枝 委員님께서 우리 여성들에게 컴퓨터교육 등을 확대해서 정보화사회에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시설투자가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여성만을 위한 컴퓨터교육이라고는 저희가 한정을

짓지 않고 저희 家庭福祉局 산하에만 해도 청소년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또 여성발전센터라든지, 컴퓨터교육장비를 갖춘 그런 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을 여성들한테 개방을 해서 좀더 확대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좀싼 386을 586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쓰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사항도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지금은 다운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업그레이드하는 돈이면 신기종으로 바꾸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386을 사서 오래 썼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한다 해도 그 기능이 조금은 미흡하다 해서 신기종으로 많이 바꾸었습니다만 앞으로 IMF시대에서는 이런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센터를 세 군데 하는데 구체적인 위치를 물으셨는데 솔직히 구체적인 위치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적으로만 저희가 배분을 해 주었고 각 자치구에서 구체적인 위치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개설하도록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이 되면 저희가 위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센터 위치는 사실 비밀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공개가 되면 안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센터의 위치는 앞으로도 언론에 공개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 4급 이상 여성간부가 너무 부족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시에 4급 간부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연희 여성복지과장하고 이봉화

전산정보담당관하고 돌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분들에게 이런 건의를 많이 드렸고 또 女性政策補佐官室에서도 4급 여성간부를 양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지금 현재 그래도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무관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당되는 사무관이 될 수 있으면 승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사항으로 저희도 추진을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좀 앞으로 인사가 있을 때 좀 도와주시면 한 사람이라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金永姬 委員님께서 女性政策補佐官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제 답변으로 같음을 하고요. 여성기업인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 것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그 기업인 관계는 구체적으로 딱 실적으로 드러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女性政策補佐官室에서 이것은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따 金善順 事務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개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위촉이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달성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26개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위촉이 안되어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 계속 결원이 될 때 위촉을 해 달라고 실국에 추구를 하겠습니다만 그쪽 위원회를 관장하는 실국에서 또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여성들이 전문직에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현장에서의 실전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보충하기 위해

서 여성인명록을 발간하기 위한 기초자료 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 보급부대 역할을 좀 하겠다, 여성위원들을 위촉만 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발굴해서 추천하겠다 하는 그런 사안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에 관련된 상담소들이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서울시 사업으로 여기에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이 20페이지 성폭력 피해여성 상담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성폭력상담소라든가 여성의 전화라든가 해서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에서 그 동안에 독자적으로 하던 것에 플러스 저희 서울시에서 행정적인 지원 내지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면서 저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런 상담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것들이 시 지원을 받아서 같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永姬 委員; 그러니까 성폭력상담소나 한국여성의 전화 이런 부분이 여성발전기금 지원비로 했기 때문에.....

○家庭福祉局長 金愛良; 여성발전기금 말고 저희 별도의 집행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2억 9,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金永姬 委員; 2억 9,600만원이 다섯 개 상담소에.....

○家庭福祉局長 金愛良; 4개하고 열림터, 임시보호시설 2개소 해서 6개소에 대해서 하고있습니다.

○金永姬 委員; 그러면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입니까?

○家庭福祉局長 金愛良; 인건비도 일부 있고 또 운영비도 일부 있고 해서 지원이 나갑니다. 그 동안에는 사실 이 민간단

체들이 혼자 어렵게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서울시 예산에서 보조를 해 드리면서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고요.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별도입니다.

○金永姬 委員;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은 여기는 안 나왔습니까?

○家庭福祉局長 金愛良; 여기서는 저희가 상담이나 보호시설 운영 쪽으로는 중복되지는 않지만 다른 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지요.

○金永姬 委員; 그러니까 이 민간단체는 서울시 예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부분이 많다, 그 얘기지요? 그러면 몇 %입니까?

○家庭福祉局長 金愛良; 한 7·80% 그 정도 지원이 된다고 봅니다.

○金永姬 委員; 그러면 완전히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家庭福祉局長 金愛良; 서울시에서 소프트웨어 쪽에는 개입을 안 하지만 운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비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지요.

○金永姬 委員; 왜냐 하면 여성발전기금이 6억원 정도 나왔지요?

○家庭福祉局長 金愛良; 네, 6억 6,000만원 정도.

○金永姬 委員; 그 정도 나왔는데 그게 한 70개 단체에 나왔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 여성단체의 가장 취약점이 재정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중적으로 지출은 안 되는 것으로.....

○家庭福祉局長 金愛良; 그렇지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

면 되겠습니다.

○金永姬 委員; 아니, 이해는 됩니다. 왜냐 하면 일단 이 사업과 업무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지출했다고, 그러나 단체는 같은 단체다 이거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으로 지금 30%를 준다면 또 다른 사업으로 주는 프로테지가 10%라면 한 80% 준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단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나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성단체가 서울시의 여성발전기금을 받아서 활동을 하면서도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 비교의식이 생긴다 이거지요.

왜냐 하면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지급을 했지만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디는 특혜를 많이 주었다, 어디는 덜 주었다, 우리는 왜 이것만 주느냐 이래가지고 가치있는 돈을 쓰기도 칭찬을 받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여성발전을 더 많이 하기 위한 서울시의 기금인데 위화감이 조성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여성발전기금을 주는 입장에서는 좀더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물론 감사도 하시겠지만 앞으로 심도있게 어느 사업 어느 사업 해서 와꾸를 짜서 서울시는 이번 여성활동에는 이것에 집중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 있어 주어야지, 수십 가지의 수만 가지의 사업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전부 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여성발전은 못한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너무 한 군데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서울시 각 區廳에 전부 청소년상담실이 있지 않

습니까, 거기 별정직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얼마나 실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오히려 서울시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해야지, 민간에 계속 주었을 때 딜레마에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신중한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상담역할을 하는 데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는 폭력성, 폭력여성의 전화, 이게 다 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나중에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돈을 쓰면서도 서울시민 여성들이 오히려 불만의 소리가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家庭福祉局長 金愛良;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운영지원 쪽의 성격이 있고요. 발전기금으로 준 것은 운영비로는 쓸 수가 전혀 없습니다, 사업비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委員님 말씀한대로 금년도에 처음 여성발전기금 사업심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간과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심도있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사업에 대해서 우리 金永姬 委員님께서 아까 한양대학뿐만이 아니고 각 대학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너무 간략하게 드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이 자원봉사활동 전문분야 개발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방과후 아동지도하고 문화관광자원봉사 쪽에 여성의 자원봉사자들을 발굴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 활용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사

업의 시행주체를 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 제3섹터 사회봉사연구소하고 중앙일보하고 이렇게 몇 군데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사업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양대 제3섹터 사회봉사연구소하고 컨소시엄을 맺은 그 기관에서는 방과후아동지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저희가 결정을 했고, 나머지 볼론티어21 거기에는 문화관광봉사 분야를 맡아달라 해서 두 군데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분야의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원봉사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여러 분야의 전문분야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많은 대학에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문호는 개방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공모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학점하고 연계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金永姬 委員님이 또 어린이집에.....

○金永姬 委員; 문화관광자원봉사자라고 그랬어요?

○家庭福祉局長 金愛良; 네.

○金永姬 委員; 문화관광자원봉사자라면 어떤 거예요?

○家庭福祉局長 金愛良; 그것은 저희 생각에는 문화재라든가 이런 고분 같은 데 많은 외국인들도 오고 이러는데 사실은 관광회사 쪽의 안내원들이 깃발관광 비슷하게 안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오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을 여성으로 확보를 해서 그런 데에 배치를 해서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발굴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金永姬 委員; 그게 家庭福祉局에 관계되는 업무가 되나
요?

○家庭福祉局長 金愛良; 아니, 저희가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
는 그 일을 바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 봉사할
수 있는 여성인력을 발굴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공급해 주겠
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비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의 현원이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어린이집들이 운영이 어렵다 하는 염려를 해 주
셨습니다. 사실 IMF가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어린이집의 보
육대상아동이 늘 것이냐, 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
직 정확하게 실체를 진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
다.

일부에서는 나름대로 실업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아이들이
줄지 않겠느냐, 데려다가 집에서 보육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업이 앞으로 구조
적으로 굉장히 장기화되고 그러면 여성들이 더 나가야 될 것
이다, 남자도 나가고 여자도 나가고 하여튼 파트타임이든 뭐
든 간에 자꾸 나가서 일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될 것이기 때
문에 아이들이 방치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태를 봐서는 우선은 아이
들을 데려갔습니다. 감소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국공립
시설보다는 민간보육시설 쪽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의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IMF에 따른 실직자 생활안정대책
의 일환으로 발표한 것이 당분간은 실직자 가정의 보육아동
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50% 감면해 주겠다라는 계획을 저희

가 발표를 했고 그에 따른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기적으로 가기 전까지의 단기상황 속에서는 아이들을 데려간다 해도 사실 실직한 남자 가장이 아이를 돌보면 또 얼마나 돌보겠습니까? 교육적으로나 그런 효과 면에서는 마이너스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조금 더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성플라자자문위원회에 여성건축사협회에서 참여가 되었느냐고 물으셨는데요, 여성건축사협회에서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건축가 민선주 위원이라고 연세대건축을 담당하신 교수가 참여를 해 있고, 또 여성플라자자문위원회는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우리 여성들의 집이기 때문에 여성단체 쪽도 일반여성 쪽에서도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 자문위원회에 변동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 말씀은 좋습니다. 여성건축가협회에서도 한 분쯤은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이 정책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성동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여성동장은 별정직 4분이 임명이 되어 있고 행정직 한 사람이 되어 있어서 5명의 여성동장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직 쪽의 여성공무원들이 배치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여성사무관은 시험을 봐서 붙어야 되고 여성행정공무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廣津區에서만 여성사무관 한 사람을 통장으로 배치를 했고, 배치를 한 결과 굉장히 평가가 좋습니다. 여성동장이 가니까 굉장히 주민들도 좋아하고 또 區廳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성 5급이 탄생이 되면 區廳에서는 동장 쪽에 많이 배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제 여성들이 시험 봐서 붙는 또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金永姬 委員; 局長님, 신규채용하는 사무관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家庭福祉局長 金愛良; 아니, 신규채용이 아니고 지금 일반 6급에서 승진시험 보는, 승진하는 경우에도 시험을 봅니다.

○金永姬 委員; 아니 그것은 알고 있지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무관까지는 시험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올린 것은 지금 5급이 상당수가 있어요, 서울시 각 區廳에. 지금 課長님들로 계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課長이 상당히 많아요. 5급 사무관 이것은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5급 사무관들이 있는 한은 기관의 기관장으로서의 훈련이 되어져야지만 앞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지 않느냐 이거지요. 왜냐 하면 5급에서 4급 되는 것은 그것은 근속연수와 여러 가지 평점에 따라서 승진하는 것이고 5급까지는 시험을 봐서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급에서 여러 가지 평점을 많이 받아서 인정되어야만 4급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지금 리더자나 책임있는 부서에는 별로 없다 말이에요. 오히려 동장이라는 기초행정이기 때문에 또 리더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중에서 동장으로 발탁할 수 있어서 주민과 밀접한 행정업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면 여성의 발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 하면 먼저 임명직으로 했을 때 별정직으로 계실 때에도 시험적으로 몇 분 했어요. 그래서 평가는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임명직으로 되어 있던 말이에요, 임명직으로 되다 보니까 승진해서 젊은 사람들이 동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민관계가 주로 주민이거든요, 동장이라는 것은. 기초행정이니까 어려운 사람 돕고, 복지관계 돕고, 거택보호자 돕고 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女性政策補佐官室에서는 이런 부분을 점점 확정해서 동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없느냐 이거죠.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표를 88년도에 5명이 다 그러면 5명 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기초행정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지위향상이 아니냐 이거죠.

○家庭福祉局長 金愛良; 저희 자치구에 여성공무원 5급 있는 분들이 대부분 家庭福祉課長입니다, 그 家庭福祉課長 자리를 우선 채워야 된다고 청장님들은 생각을 하시고 여유인력을 활용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委盲長 金天柱; 그것은 참고를 하세요.

○家庭福祉局長 金愛良; 다음은 우리 金勝子 委員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해서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회에 대해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그 위원회를 관장하고 실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플라자의 문화체육시설에 수영장하고 체육시설만 적시를 했는데 문화시설은 저희가 설계해서 진행 건립하는 과정에서 문화시설이라는 것이 강의실 있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추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구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女性政策補佐官의 평균 재임기간을 물으셨는데 평균 재임기간이 굉장히 짧은 것은 다 아시는 사항이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李昌根 委員님 말씀하신 고학력 또 상류층 여성들을 우리 여성정책에 참여시키면서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라고 그러셨는데 명심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委員長님, 여성위원회 명단은 자료로 제출해 올리고요. 윤락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金善順 事務官이 여성기업인에 대해서.....

○女性政策擔當事務官 金善順; 金永姬 委員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성기업인을 위해 보좌관실에서 특별히 추진한 업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녀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조례가 뭐가 있는지 해서 조례검토작업을 작년 하반기에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기업인과 관련되는 것이 두 건이 있었는데 먼저 中小企業創業保育센터設置및委託運營에 관한條例와 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과에 여성창업주를 창업보육센터에 우선 입주토록 해 달라는 건의와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를 해 줄 때 여성기업인에게 좀 우대를 해 달라는 두 가지 건의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하면 조례까지는 고쳐지

지 않았는데 가점제도로 해서 창업을 원하는 여성이 보육센터에 들어갈 때에는 약 3점의 가점을 대상자 선정시에 주도록 하고요.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할 때도 여성경제인일 경우에는 5점의 가점을 주도록 예규나 지침으로 저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그 두 가지고요. 지난 하반기에 여성우대기업이라고 해서 제가 감사패를 수여했는데 그 중에 여성이 운영하는 아주 영세 중소기업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여성경제인 격려차원에서 저희가 한 곳을 선정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金永姬 委員; 그러면 여성경제인 협회가 지금 2개가 있지요?

○女性政策擔當事務官 金善順; 네.

○金永姬 委員; 거기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료도 받고 그렇습니까?

○女性政策擔當事務官 金善順; 그렇지는 않고요. 中小企業課에서 예규나 지침으로 관여한 사항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하고 기금을 지원할 때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저희가 받아보고 있습니다.

○金永姬 委員; 제가 生活環境委員會 委員이잖아요. 본위원이 生活環境委員會에서 항상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는 여성기업인에게 우선 지원하는 것은 저희도 건의했고요.

그 다음에 가점 주는 것이라든가 또 우선 주는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도 활동을 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女性政策補佐官室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고마운데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女性政策擔當事務官 金善順; 적극적으로 앞으로 여성경제인들이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보좌관실에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金愛良; 제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여성경제인협회인가요, 그런 쪽하고 우리 여성단체 사업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永姬 委員; 왜냐 하면 본위원이 여성경제인연합회의 임원들을 모셔다가 地域經濟局에서하는 모든 정책을 전부 설명했어요. 그래서 활용을 하도록 집단적으로 역할을 했는데 오히려 서울시도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金天柱; 그러면 1차 답변을 듣고 우리가 본회의가 2시에 있기 때문에 점심을 해야 돼서 꼭 이것은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조금 긴 것은 서면으로 해 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洪月杓 委員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洪月杓 委員;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몇 가지 건의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여성정책보좌관 문제는 누누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고 그에 따른 또 답변을 받고 보니까 아 참 또 일을 많이 했구나 싶고 우리로서는 모처럼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가 행어나 그냥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없어지지 않나 이런 걱정이 돼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또 무엇을 어떻게 그동안 자평을 어떻게 했느냐 했는데 우리도 이제 자기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렵게 만든 자리가 확보될 수 있고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체 내에, 또 혹시나 부정적

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해를 많이 촉구시켜 주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사무분장표에 제가 조금 의아해서 그러는데 부녀보호계의 4항을 보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지금도 현재 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일마다 집회를 해서 한 5년간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 지금 현재 개인당 500만원의 지원금하고 월 25만원 받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문제점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부녀보호계에서 별도로 이런 것말고도 정말 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그것이 의문이 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여성들의 어떤 인력차원에서 여기 발표회, 백일장 이런 일련의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한 번 36명씩이나 시상이 논의되는데 이런 인원도 우리에게서 굉장히 가까운 인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사후관리를 계속해서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별정직 교사채용을 동결하고 외래전문강사제로 전환했다는 것을 아주 굉장히 환영합니다. 이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고, 왜냐 하면 지금 IMF시대에 전혀 교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미 채용된 별정직 교사 때문에 그 교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가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했는데 이번에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반갑기도 하고 이렇게 전환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취업알선도 정말 일선 취업현장하고 맞을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고 여성발전센터가 자칫 잘못하면 구색을 맞추는데 자꾸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자꾸 구색을 맞추는 것 같은 분위기를 받는 수가 있거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 점을 좀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林靜枝 委員; 저도 건의사항인데요.

우리 역사 가운데서 전쟁터에서 여성이 앞치마로 돌을 날라서 전쟁에 힘이 된 것처럼 이 IMF시대에 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여성들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IMF시대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연구하셔서 좋은 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天柱; 우리 洪 委員님이 말씀하신 것 답변할 것이 있으면 하고 건의로 받아들이겠으면 받아들이시고 어때요?

○家庭福祉局長 金愛良; 일본 위안부 보호사업은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사업 이외에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고, 그리고 나의 주장 발표회라든가 시상자들 사후관리하고 발전센터에 대한 외래강사제도 확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天柱; 지금 굉장히 계획과 사업을 추진 중인데 하나 지금 여기서 염려되는 것은 IMF 보릿고개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까가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예산관계가 IMF 보릿고개에서 확실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女性福祉課에서는 우선순위를 두어서 차질 없이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얘기는 안 합니다만 오늘 보니까 우리 洪 委員도 얘기했고 金 委員도 얘기했는데 너무 여기서 일은 많이 하는데 일반여성들이 몰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 家庭福祉課가 시간을 쪼개거나 의원들 앞으로 5대에 여성의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좌담회를 해서 이런 것을 한다, 여러분 의견 어떠냐 하는 것을 많이 듣고 그래서 여성의원들이 얼마나 필요하다 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자기 PR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일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몰라, 일부만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군을 많이 만드는 것으로 해서 좌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계획을 했으면 좋겠고, 安熙玉 씨는 승진은 아닙니다만 일단 청와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분을 격려한다든지 우리가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女性特委가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하는 동안에, 우리 여성위원들도 우리 서울시에 일하는 여성공무원들도 얼굴을 몰라, 그러니까 한번에 한자리에 다 모여서 누가 누군지 이름이라도 한번 달아서 슬쩍 지나가면서라도 알 수 있게끔 한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여성공무원들이 전체 만나서 약간의 다과라도 해서 서로가 인사를 나누고 하는 그런 기회를, 女性特委가 주관이 돼서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심도있는 질문과 또 답변에 성의를 다해 주신 우리 局長님께 감사를 드리고 구석구석 여러 가지 일이 많습시다만 이것이 가정에서도 여성의 손이 필요한 것 같이 국가나 정부도 여성의 손이 필요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성들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여성들에게 이 자리를 안 쥐서는 일이 안된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더욱 더 노력을 해서 남성들과 경쟁한다는 것보다는 남성들에게 인정받는 알뜰한 공무원들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여성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있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건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상으로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성정책에 대한 것이 시간이 조금 적어서 미흡합니다만 다시 좋은 기회를 만들 것을 여기서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우리 제 102회 임시회 중 제1차 女性特別委員會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3時 05分 散會)

○出席委員

金天柱 金勝子 金永姬 李昌根
林靜枝 洪月杓

○專門委員

尹炳國

○出席公務員

家庭福祉局長 金愛良
女性政策擔當事務官 金善順